

韓半島人の 口腔狀態와 口腔醫學

<現代齒科醫術의 流入以前까지>

奇昌德 齒科醫院 院長
가톨릭醫科大學 外來敎授
醫學博士 奇 昌 德

緒 論

韓半島에 古朝鮮이 開國되면서부터 醫藥이 創始되었고 醫事가 施行되었음은 文獻을 통해 알고 있으나 韓半島에서 태어나 平生을 살고 간 우리들의 祖上님들이 口腔에 發生한 여러가지 疾病이나 혹은 病變의 治療에 關係 끝임없이 努力한 즉 口腔 및 齒科醫術의 記錄은 찾아 보기 어렵다.

古代中國에서 醫藥이 專門的인 分類나 明確한 根據로 처음부터 施術되어 온 것이 아니고 다만 經驗의 反復으로 가려진 本草의 適切한 處理와 方法을 가장 專門的으로 觀察 記錄한 神農의 本草學 또는 皇帝의 醫術上의 原則등을 基本으로 하여 그후 많은 學者들이 各者의 經驗 및 觀察로 새로운 說을 提示하고 追加한 것들을 蒐集하고 集成한 수많은 醫書들이 傳해져 오고 또한 우리들의 祖上님들도 이를 應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中國醫書 또는 우리의 固有醫書중에 提示된 疾病의 知識 및 治療法만이 우리 社會에서 病的人體를 完全 解決한 것은 아니다. 蒙昧한 迷信이나 慣習의인 信仰같은 精神의 治療法의 影響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가지 形態로 傳해져 내려온 固有民俗의 治療法에도 期待했을 것이며 效驗도 認定하고 있었을 것이다.

文獻으로 傳해져 내려오는 醫書에 羅列된 傳統의인 治療法보다는 韓半島에서 一生을 살다가 이 땅에 묻힌 그 時代의 사람들이 事實대로 남긴 遺物과 그들이 만든 文化遺物 또는 民俗遺物들을 參考로하여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로 나누어 現代齒科醫術이 流入되기 以前까지를 時代別로 當時의 口腔狀態와 口腔醫學에 對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의 遺物에 나타난 口腔狀態

三國時代로부터 統一新羅에 이르는 약 1000 年間の 韓半島에 散在해 있는 遺跡址를 發掘調査하여 發表한 報告書를 中心으로 當時의 文化와 口腔狀態를 古書등 文獻에 依한 齒科醫學的

인 考察과 比較해 본다.

高句麗와 같은 時期에 韓半島一部에 이미 자리잡고 있던 漢四郡의 樂浪古墳에서 “王光”이라 彫刻된 2個의 木印이 들어 있는 破壞된 木

棺과 또다른 完全한 女性人骨이 女性用副葬品과 같이 들어 있는 完全하게 保管된 漆塗木棺이 出土되었다¹⁾ 今村(1932)²⁾은 이 漆塗木棺속의 女性人骨의 顎骨과 齒牙에 關하여 鐵器時代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報告하였다³⁾. 特히 下顎左右側中切齒脫落으로 甚하게 退化된 部位에는 兩側側切齒가 中心側으로 傾斜되어 있어 風習的인 拔齒를 疑心케 한다고 하였다. 또 Boots(1985)⁴⁾도 樂浪古墳出土 人骨의 齒牙에서 齶蝕齒를 報告하고 있다. 즉 韓半島에서 漢文化遺物인 漢字가 彫刻된 木印과 其他 副葬品이 出土되었고 山東地方의 風習의 人工拔齒를 疑心케하는 齒牙의 缺損과, 또 文化人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齒牙齶蝕症등은 높은 水準의 漢文化와 漢風習이 韓半島에 流入된 證據라고 본다. 즉, 이는 漢四郡時期의 漢나라 사람들이 風習的 拔齒外에도 많은 巫俗 또는 民俗의 醫術을 爲始하여 많은 醫學的 知識에 齒科醫學도 包含되어 交流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高句麗의 文化遺蹟으로는 黃海道 安岳郡 대추리⁵⁾, 유설리⁶⁾, 북사리⁷⁾—帶와 平安南道 江西郡 약수리⁸⁾, 태성리⁹⁾, 一帶, 中和郡 무진리¹⁰⁾, 龍岡郡 대안리¹¹⁾ 大同郡 팔청리¹²⁾등의 壁畫古墳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高句麗의 思想과 生活相을 엿볼 수 있는 南北朝美術의 影響을 强하게 받은 高구려의 特有的 營造技術과 繪畫的手法을 加味한 獨特한 壁畫古墳이다. 特히 安岳의 冬壽墓(第3號墳)⁶⁾는 西紀537年에 만들어진 것으로 250余名의 華麗한 行列圖를 爲始하여 主室의 四面에 그려진 무덤主人의 生活相과 그의 周邊相, 그리고 生活周邊을 보여주는 外양간, 車庫, 방아간, 부엌, 우물등의 그림, 이러한 높은 教養을 表現한 古墳壁畫와 醫藥學의 發展과 關聯이 있다는 壁畫의 塗料등은 역시 高句麗의 文化的 傳統을 無視할 수 없으며 漢土文化의 感化도 推察된 文化遺物¹³⁾로 現代人으로서도 한눈에 理解가 될 눈에 익은 모습들이다. 이는 그 當時부터 이어 내려온 農耕文化가 큰 變化없이 最近 數十年前 機械文化가 一般生活에 스며들기 以前까지 우리 周邊에서 같이 하던 生活相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그 時期의 사람들의

齒牙에 關해서는 白(1983)¹⁴⁾의 江原道 春城에서 出土된 2軀分의 人骨을 調査한 報告書에서 下顎의 全齒牙가 生前에 脫落되어 右側第一小白齒와 左側犬齒의 齒槽만이 不完全閉鎖狀態이고 나머지 齒槽는 完全閉鎖된 女性老人의 無齒下顎骨과 上顎의 左側白齒部는 이미 脫落되어 齒槽가 完全閉鎖되어 있고 右側白齒部는 齒槽骨이 缺損된 狀態이며 남아있는 7個의 齒牙중에서도 3個齒牙가 齶蝕齒이고 나머지 4個齒牙도 甚한 咬耗症을 나타내고 있는 壯年期男子의 口腔狀態를 報告하고 있다. 이는 無齒顎의 老人이 生活할 수 있는 文化生活水準을 말해주는 것이며 齒牙의 齶蝕과 拔去된 齒槽의 吸收는 齒痛에서 벗어나는 智慧와 方法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百濟의 遺物은 忠南과 全南北 特히 公州와 扶餘等地에서 出土되고 있으나 人骨이나 齒牙에 關한 報告는 없다. 酸性의 土質關係인지 形態를 알아보기조차 어려운 齒冠部만 남아있는 齒牙가 武寧王陵 玄室에서 1個 發見되었을 뿐이다¹⁵⁾(圖-1).

新羅의 文化遺物은 慶州를 中心으로 統一新羅때의 것과 그 以前 星山伽倻, 昌寧伽倻, 高靈伽倻 즉 大伽倻의 遺蹟址에서 出土되고 있다. 人骨도 많이 出土되어 當時의 口腔狀態를 어느 程度 짐작케 해 주고 있다.

長谷部(1921)¹⁶⁾는 星州古墳에서 出土된 人骨 3體軀를 調査하여 齶蝕齒에 關해서는 言及이 없이 齒冠이 없는 齒根만이 齒槽에 들어 있는 齒牙와 咀嚼面이 磨耗가 甚하다는 程度의 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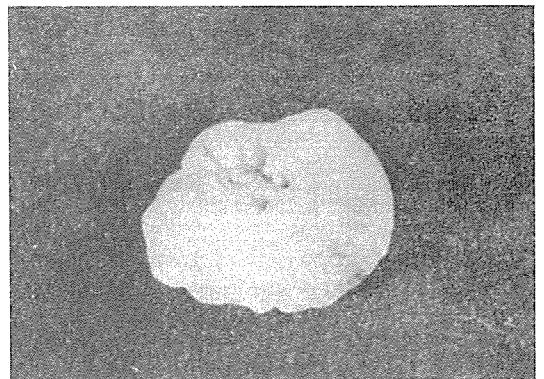


圖-1 <“武寧王陵”>에서 轉載

를 하고있다. 朱 등(1980)¹⁷⁾은 高靈古墳에서 出土된 30여개의 石棺에서 40여軀의 人骨을 發掘하여 그 중에서 20개 石棺 22軀에 對해 人類體質學的研究의 報告를 하고 있으나 이 報告書는 年齡鑑定에 基準이 되는 齒牙의 觀察記錄도 없고 齒牙에 關해서는 全然 言及이 없다. 백기하(1965)¹⁸⁾도 안변군 용성리에서 新羅의 무덤을 發掘하여 出土된 10余軀의 人骨에 對하여 人類體質學的研究을 하였다. 그러나 백은 保存狀態가 좋은 上顎骨 5片, 下顎骨 9片에서 病的痕跡, 變形의 痕跡등은 없으나 咬合面이 全般的으로 1/2以上 咬耗되어 있었다고 報告하고 있다. 金 등(1981)¹⁹⁾이 金海 禮安里 古墳에서 出土된 4世紀부터 7世紀까지의 88基의 墳墓로부터 125軀의 人骨을 發掘하여 男性 33軀, 女性 30軀, 性別不明 62軀를 調査 發表하였다. 이들 중 口腔狀態가 잘 記錄되어있는 乳齒齒列을 가진 12軀와 男性 13軀, 女性 18軀에 對하여 齶蝕의 罹患率, 齒根端膿瘍의 發生率등을 計算해 보았다. 齒牙의 齶蝕症이 있는 人骨은 11軀로 35.48%이고 齶蝕을 가진 人骨의 平均齶蝕齒數는 2個였다. 또 齒牙의 缺損率은 51.61%이고 平均缺損齒數는 7.4個였다. 齒根端膿瘍의 痕跡이 있는 人骨이 9軀로서 27.03%이며 平均發生數는 2.2個나 되었다. 이들 數字는 奇(1962)²⁰⁾

의 서울의 數個會社職員들 즉 現代人의 口腔衛生狀態調查報告에 發表된 齶蝕罹患率 81.69%, 平均 蝕齒數 3.0個보다는 적은 數值이나 齒牙缺損에 있어서 現代人은 25.95%, 와 0.5個의 數值를 보여 너무도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으며 齒根端膿瘍의 發生도 現代人보다는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數值는 當時도 齶蝕에 罹患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으며 齒根端에 膿瘍의 痕跡이 있음은 齒科治療法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즉 事故로 因한 齒牙의 脫臼, 破折, 齒牙의 齶蝕 또는 齶蝕, 脫臼, 破折등에 依한 齒根端의 病變, 이러한 여러가지 原因으로 오는 齒痛의 對應策은 漢醫師들의 依한 鍼灸療法, 藥物療法과 巫醫 또는 法師의 依한 巫呪나 呪願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根本的인 治療法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齒痛에서 벗어나는 最終手段으로 齒牙를 拔去하는 것이 唯一한 治療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人骨에 남아있는 拔齒窩의 治癒形態를 보면 齒槽骨까지 缺損된 것이 많이 있다. 이는 腕力의 依한 原始的拔齒法이 남겨 놓은 傷處가 아닌가 推測한다.

金 등(1986)²¹⁾은 禮安郡 古墳群 出土人骨에서 觀察된 病變을 整理하여 發表하였다. 口腔領域에서는 病變으로 15號墳 女性(20-30 歲)의 右

表-1 禮安里古墳出土 人骨 口腔狀態

	乳齒列	男 性	女 性	計
體軀數	12 軀	13 軀	18 軀	31 軀
齶蝕率		3(23.07%)	8(44.44%)	11(35.48%)
平均數		6(2.0個)	17(2.1 個)	23(2.0 個)
缺損率	2(16.66%)	6(46.15%)	10(55.55%)	16(51.61%)
平均數		33(5.5 個)	86(8.5 個)	119(7.4 個)
膿瘍發生率		2(15.38%)	7(28.88%)	9(27.03%)
平均數		6(3.0 個)	14(2.0 個)	20(2.2 個)

表-2 서울 數個會社職員들의 口腔衛生狀態

	總 數	患者數	罹患 및 缺損率	平均齒牙數
齒牙齶蝕	497	406	81.69%	3.07 個
齒牙缺損		129	25.95%	0.57 個

側上顎側切齒齒根端部 膿瘍으로 因해 생긴 洞孔(圖-2)과 41號墳 男性(40-50 歲)의 左側上顎第2小白齒部 齒槽에 생긴 左側上顎洞 穿孔(圖-3)을 報告하였고 先天性異形은 76號墳에서 出土된 乳兒 左側下顎의 乳側切齒와 乳犬齒가 齒冠 齒根 모두 癒着된 癒合齒(圖-4)의 觀察報告였다. 病變에 關係서는 앞에서 말 한바와 같으나 先天性異常인 癒合齒의 報告는 古人骨에서는 처음이 된다.

統一新羅에 이르러 金屬工藝가 매우 發達되어 있었음이 慶州地方의 新羅古墳에서 出土된 金冠을 비롯한 金, 銀의 細工品, 金屬生活用品, 佛像, 梵鍾등 황홀한 솜씨의 遺物들로 보아 充分히 알 수 있다²²⁾. 이러한 높은水準의 金屬工藝技術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齒牙의 機能과 美의 回復을 爲한 齒科補綴의 開發이 없었음은 믿어지지 않는다. 慶州地域에서 發掘調査되어 報告되는 모든 報告書는 勿論 張등(1975)²³⁾의 慶州 第98號古墳 發掘調査 記錄에서도 2軀分의 人骨에서 土壤化된 enamel만 남아있는 28個의 齒牙를 收去하여 겨우 咬合面의 磨耗程度를 報告하고 있을 뿐 口腔이나 齒牙에 直接 도움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것에 關한 遺物은 全然 報告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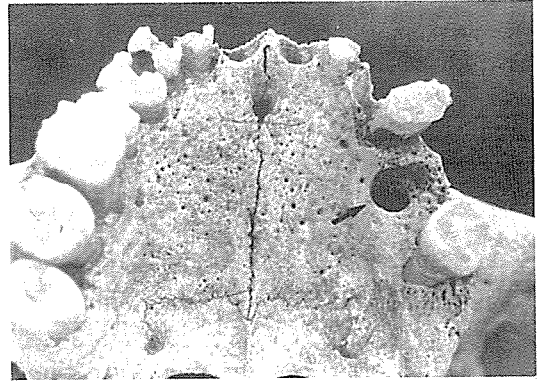


圖-3 金鎮晶等の 論文²¹⁾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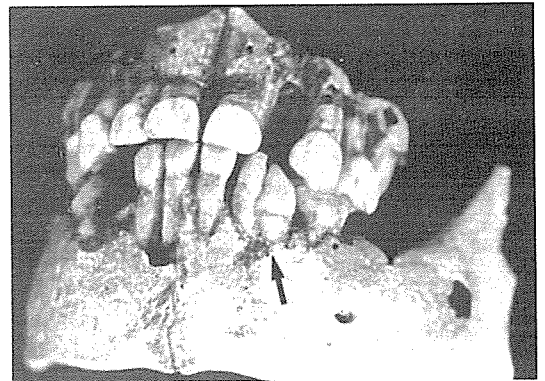


圖-4 金鎮晶等の 論文²¹⁾에서 轉載



圖-2 金鎮晶等の 論文²¹⁾에서 轉載

參 考 文 獻

1. 今村 豊이 小場恒吉 發掘擔當者의 말에 依해 <樂浪古墳骨의 一例>에 記錄한 것.
2. 今村 豊: <樂浪古墳骨의 一例> 人類學雜誌 48, p.38 42, 1932.
3. 奇昌德: <鐵器時代의 食生活과 口腔狀態> 大齒協誌 28(5) p, 462-465, 1990.
4. Boots, J.L.: <A Chinese Nak Nang Skull of The AD2C> J.A.D.A.22, p. 292, 1932.
5. <안악 제1호 및 제2호분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 제4집, 1949.
6. <안악 제3호분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 제3집, 1949.

7. 전주농 : <약수리 벽화 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 3 집, p.136-152,
1963.
8. 전주농 :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벽화
무덤> 윗책 p.153-161, 1963
9. 전주농 : <강서군 태성 저수지 내부 지대
의 고구려 무덤> 윗책, p.189-205,
1963.
10. 전주농 <전 동명왕릉 부근 벽화 무덤> 윗
책, p.171-188 1963.
11. <평안남도 룡강군 대안리 제 1 호 묘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 2 집, p. 1-10,
1959.
12. 전주농 <대동군 팔청리 벽화 무덤> 고고
학자료집, 제 3 집 p.162-170 1963.
13. 金斗鍾 : <日本으로 건너간 우리 三國時代
醫學> 朝鮮警報 1(3) p.162-170 1946.
14. 白先溶 : <江原道 春城郡 高句麗式 石室古
墳에서 出土된 古人骨에 대한 人類學的 研
究> 大韓解剖學會誌 16(2), p.291-302,
1983.
1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武寧王陵>
1973.
16. 長谷部言人 : <星州古墳人骨調査> 朝鮮古
蹟調査報告, p.71-77. 1921.
17. 朱剛, 李仁煥 : <慶北高靈 44號, 45號 古
墳에서 出土된 人骨에 關한 研究> 慶北醫
大雜誌 21(2) p.453-459, 1980.
18. 백기하 : <안변군 용성리에서 나온 인골에
대하여> 고고민속 4호 p.48-53, 1965.
19. 金鎭晶外 : <金海 禮安里 古墳群 出土人
骨> 釜山大學校 博物館遺跡調査報告 題 8
輯, p.321-369, 1980.
20. 奇昌德 : <市內 數個會社 職員들의 口腔衛
生狀態 調査報告> 가톨릭大學 醫學部 論
文集 5, p.359-375, 1962.
21. 金鎭晶, 白先溶 : <金海 禮安郡 古墳群 出
土人骨에 나타난 病變> 釜山醫大學術誌
26(2), p.1-5, 1986.
22. 國立慶州博物館 : <慶州博物館 附 新羅遺
跡> 1975.
23. 張信堯 : <慶州 第98號 古墳에서 出土한
古墳骨에 關한 研究> 文化財 第10號, 文
化財管理局, p.90-99, 1976.

<다음호에는 “高麗時代의 口腔醫學에 對한 考察”에 대하여 기술함>